

NEWS 최근 5년새 전남 청년 6만명 타지역으로 떠났다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1면 ‘광주시-민주당’서 계속

강 시장은 “광주는 지금 국가AI컴퓨팅 센터 유치가가장 큰 현안이다. AI로 먹고 살고, 모두의 AI를 실현하려는 광주의 새로운 도전에 민주당이 함께해주신다고 하니 큰 힘을 얻는다”며 “광주는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정책이면 정책, AI면 AI로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이 오늘의 빛의 혁명으로 활짝 피어났다”며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데, 대한민국은 광주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이 질문에 국가가,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가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고, 광주 민주정신이 잘 살아 숨쉬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며 “AI중심도시 도약, 문화시설 기반 확충,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롯데카드, 해킹 정보 유출

297만명 회원 전액 보상

롯데카드가 18일 해킹 공격 피해 조사 결과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작된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조 대표는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명”이라며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고객은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 새로운페이결제 서비스나 커머스 사이트에 사용 카드정보를 신규 등록한 고객”이라며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며 “2차 피해도 연관성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철 도의원, 청년비전센터 지연·예산 불용 등 지적

농산어촌 유학 사후관리 부족...실질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 동안 전남을 떠난 청년이 무려 6만여명에 달하는 등 전남도의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18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 유출이 전남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전남 청년 인구가 빠져나간 규모는 6만2597명으로 전남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며, 인구 3만명 미만 도시 두 곳이 사라진 것과 맞먹는다”며 “이 같은 인구 구조 악화에도 도의 청년정책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 청년비전센터 건립 지연을

꼽았다.

정 의원은 “전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400억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약속했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에만 154억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예산은 매년 편성·이월·불용만 반복되고, 청년과의 소통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목포시는 이미 유사 기능의 ‘청년쉼터’를 개소했는데, 도와 시·군이 따로 움직이면서 행정 불신과 예산 낭비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시·군에는 청년센터가 전혀

없고, 운영 중인 센터마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형식적인 공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년비전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쓰기보다 시군 청년센터를 강화했다면 청년 유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산어촌지역 유학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2021년 82명으로 시작한 농산어촌 유학생이 현재 356명까지 늘었고, 가족 동반 이주까지 포함하면 597명이 지역에 들어왔다”며 “청년이자 생활인

구로 정착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도 차원의 지원은 종료돼 거주 시설 부족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정책은 안 된다”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전남의 지속 가능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복지 성장은 현장 돌보는 복지종사자 덕분”

강기정 시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유공자 표창·체험부스 운영 등 행사 다채

강기정 광주시장은 18일 “광주복지 성장은 현장 돌보는 복지종사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복지도, 광주의 복지도, 차츰차츰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격려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시는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단일임금체계인 호봉제 적용, 건강검진비 지원, 유급휴가 확대,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대승적 결단이 시민들에게 한층 높아진 복지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시와 광주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 강 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영기 사회복지협의회장, 박병구 관산구청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함께 모여 현재의 복지를 만들고 더 빛나는 하루가 된다’는 공연(퍼포먼스)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후원금 전달식,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어울림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복지의제 투표, 사진 경

연대회, 맞춤형상(퍼스널 컬러) 찾기, 사회공헌기업 홍보부스, 경품이벤트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종사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장이 됐다.

사회복지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도 수여됐다. 사회복지 유공자는 김영자·김현아·박동영·박종민·정미경·나선미·오영심·천은영·문세미나·정영애·김미영·김선석·이종석·김성광·문화영·최승연·주정희씨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등이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이어오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행안위 통과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1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기후에너지청·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1소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

이다.

법안1소위는 이날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둔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은 통과 후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서 집행유예 4년 선고

1심 징역 10년 대폭 감형...특경법 횡령·배임 무죄 판단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화산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림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다.

2022년 8월 1심은 기소된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불인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연합뉴스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새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악·09·0905호